

“네트워크의 부 The Wealth of Networks- 요하이 벤클러 저”

2부 재산권과 공유재의 정치경제학

2018.05.25

05 개인적 자유: 자율, 정보, 법

키워드: 자율성 vs 재산권 / 공유재 vs 재산권 / 정보과부하 vs 정보

산업 정보경제 시대와 네트워크 정보경제

◆ 네트워크 정보경제:

- 개인이 자신을 위한 작업이나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의 범위와 다양성을 상당히 넓혀 줌
- 전유적 (proprietary) 플랫폼 기반의 매개적 커뮤니케이션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동시에 비전유적 (nonproprietary) 대안 커뮤니케이션에 활용할 수 있는 역량과 정보도 제공.
- 개인들이 접하는 정보의 범위와 다양성을 질적으로 증가시킴.
- 개인들이 비판적 자기성찰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음 (수용 또는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

◆ 대안으로서의 동료생산 프로젝트 Peer Production

시장 논리나 기업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개인들이 공동체가 공유할 수 있는 재화의 생산을 위해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자발적으로 협력하는 생산 모델

◆ 규제 시스템과 국유화된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에 대한 환멸은 전유적-시장 시스템에 기반을 둔 커뮤니케이션과 정보 제공을 적극 수용하는 계기를 제공.

◆ 재산권은 인프라 소유자가 시스템 이용자들에게 비대칭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권력을 창출한다. → 대안: 공유재 기반의 네트워크.

◆ 정보 공유재 information commons

자율성 존중 정책 autonomy-respecting policy: 이용 가능한 정보의 양과 다양성을 제한하지 않는 정부의 존재

◆ 공유적 기반의 네트워크는 개인의 활동에 미치는 제약을 다양하게 하며, 대안적 정보 흐름에 사용되는 대안적 거래 틀을 제공하므로 개인적 자유를 질적으로 크게 개선시킴.

◆ 정보과부하와 자율성의 문제 “바벨의 혼란Babel Objection”

→ 실질적 자율성, 결정비용의 문제

→ 정보에 대한 편집의 기능에 내재된 권력 문제, 편집자를 자유로이 선택이 가능한가의 문

제, 필터링과 인증의 문제

- ◆ 관련성 필터링 (구글 페이지 랭크 PageRank), 자율적 개인들의 공조행위 (coordinate behavior), 관심사 기반 클러스터(interest-based cluster)와 맥락 기반 클러스터(context-based cluster)등의 클러스터링, 분산형 모델, 관심배분 패턴 (attention-distribution pattern)
- ◆ 바벨의 혼란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적 대응책은 자율적 개인에게 필터링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수긍하는 것. 네트워크 정보 경제에서 개인은 소비자의 역할에서 주도적으로 시기문화를 생산할 수 있는 대등한 참여자로 전환하고 있음.

06 정치적 자유 1: 매스미디어의 문제들

키워드: 공론장과 매스미디어, 네트워크환경과 매스미디어,
공적 커뮤니케이션과 민주주의

- ◆ 공론장 Public sphere.
부르주아 공론장(위르겐 하버마스)에서 네트워크 공론장으로 진화.
 - 공론장은 사회구성원들이 공적 관심사로 이해하고 주고받는 내용이자, 잠재적으로는 집합 행동-집합 인식을 필요로 하는 일련의 실행을 의미함.
 - 위르겐 하버마스: 공론장을 “정보와 관점을 주고받는 네트워크”로 정의. 복합적 사회 시스템의 작동을 위해 필수적인 사회 실행을 의미. 사회적 실행에는 인간사회를 지배하기 위한 요소도 포함되어, 권위주의적 공론장 (authoritarian public spheres)에서는 정부가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편성하고 통제함. 정부의 공론장 지배.
 - 20세기에 걸쳐 매스미디어는 모든 선진화된 사회들에 공론장을 구축 (제도적 모델에 따라 자유주의적일 수도 권위적일 수도 있음)
- ◆ 인터넷이 공적 커뮤니케이션(public communication)의 문화적 실행에 미치는 영향력.
 - 인터넷은 개인들이 공론장의 토론에 참여하는 주제로 여기는 사회적 실행이 정착하도록 여건 조성
 - 개인들은 더 넓은 공개적 대화(public conversation)에 참여할 수 있는 스스로의 실질적 역량을 깨닫게 됨.
- ◆매스미디어 플랫폼과 공론장

- 21세기 제4계급(fourth estate)으로서의 미디어. 정부 국정수행에 대한 비판적 감시자 (watchdog)의 역할 → 상업성에 치중, 공적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역할에는 소홀.

- 수용(intake) - 필터링(filtering) - 종합(synthesis)의 과정

- 신문→ 라디오 → TV

◆ 자유주의적 공론장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 아고라: 사람들이 어젠다 항목들에 대해서 제안을 듣고 표명하는 공간.

- 공론장을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으로 보는 측면. 공론장은 정보와 정보를 해석하는 관점들이 교환되고 필터링되고, 종합되는 과정.

→ 공론장에서의 보편적 수용과 필터링 (관련성 필터링 인증 필터링)의 문제

◆ 매스미디어의 한계

- 정보 과부하, 담론의 파편화, 미디어에 대한 감시자 기능의 쇠퇴

- 미디어가 주도하는 공공 토론에서 참여자들은 이미 완성된 메시지와 이미지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수신자

- 매스미디어 정보는 비교적 소규모 중심부에서 생산되어 대중 시청자에게 전달. 콘텐츠를 생산 전달하는 특성과 본연의 역할.

- 미디어 집중으로 인한 소유권과 돈의 영향력을 통한 권력 “베를루스코니 효과”

- 상업주의 저널리즘의 정치적 무감각: 공적 담론과 정치적 담화를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려는 미디어의 의지와 역량을 상업주의가 약화시킴.

◆인터넷과 네트워크 정보경제가 어떻게 공론장의 구조를 분명하게 개선하는가, 공론장이 어떤 커뮤니케이션 시스템과 실행을 갖춰야만 폭넓은 민주주의 요구에 부응하기에 충분한 것일까? 상업적 매스미디어와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대안.

◆인터넷은 새로 등장한 공적 커뮤니케이션 양식들의 공론장을 위한 플랫폼으로 기능

- 직접적 개별적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이용 가능성을 높여주고, 협업적 발언 (collaborative speech)이 가능한 플랫폼을 제공하며, 비시장 생산자들과 접촉할 기회를 늘려주어 접근성을 늘림

- 이렇게 확대된 접근성은 상업적 매스미디어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공론장의 개선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바탕이 되어 줌.

→ 민주주의적 개인의 참여를 보장하는 공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공론장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네트워크 정보경제 환경과 규제 등

참고:

클리어링 하우스(Clearing house)란 복수사업자 도메인간의 로밍서비스와 그에 따른 인증, 정산을 위한 서비스를 말한다. 원래 클리어링 하우스는 선물거래소나 증권거래소에서 정산소라는 의미로 사용되던 것. 음성데이터통합(VoIP) 서비스에 적용한 것.